

조선시대 전적의 능화표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unghwa Book Cover of Joseon Dynasty

洪 淳 天 (Hong, Soon Chon)*

◁ 목 차 ▷

- | | |
|---------------------|-----------------------|
| 1. 서 언 | 4.2 재현된 능화표지의 비교 및 분석 |
| 2. 능화표지의 정의와 문헌기록 | 5. 조선시대 전적의 능화표지 분석 |
| 3. 능화표지의 제작도구 및 특징 | 6. 결 론 |
| 4. 능화표지의 재현 제작 및 비교 | <참고문헌> |
| 4.1 능화표지의 재현 제작 | |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적 표지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능화표지에 관한 문헌기록 및 제작도구와 기법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古典籍 표지문화 복원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연구의 결과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의 능화지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古典籍의 표지로 능화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實錄廳儀軌』 등의 기록을 통하여 능화표지의 제작에는 黃染草注紙, 衣襟草注紙, 膠末, 綾花所用黃蜜, 綾花板 등의 물품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능화판은 고전적의 미적·기능적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능화판의 문양은 마름모양 이외에도 동물문, 십장생문, 문자문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밀랍은 시문할 때 능화판 위에 올려놓은 한지를 밀착시켜 시문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능화판의 문양을 선명하게 하고 광택효과와 방습의 역할을 한다. 황벽이나 치자 등이 고전적 표지의 염료로 사용된 것은 전적에 미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각종 이물질에 의한 표지의 오염을 방지해주며, 황벽과 치자가 충해에 효과적이어서 보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은 古文獻의 기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현전하는 조선시대 초·중·말기에 간행된 전적 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한 능화표지는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함으로써 마찰열에 의해 밀랍이 표지에 스며들어 표면의 마모를 적게 하여 표지의 손상을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능화표지는 염색된 종이를 배접한 표지에 습기를 주고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능화표지가 전적문화재에 사용된 능화표지와 유사함으로써 지향해야 할 제작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要語: 능화표지, 능화지, 능화판, 제작기법, 밀랍, 황벽, 치자

* 淸州槽貼傳授教育館 傳授教育助教(sky781018@naver.com)

투고일: 2019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27일
서지학연구, 제79집, 233-253,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23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e excellence of neunghwa book cover, the “water chestnut paper” decorated with water chestnut impressions that was used in the production of book covers, and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covers of ancient books and documents based on the study of ancient records on the tools and techniques used in its production. Certain ancient works, including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and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Ilseongnok*), record that the production of Neunghwaji (water chestnut paper) for book covers required the use of chojuji (high-quality paper) to be dyed yellow or that used for the inner layer of clothing, gyomal (hide glue powder), beeswax candle and the neunghwapan (water chestnut woodblock). Neunghwapan was an essential tool in creating the aesthetic and functional aspects of books, and their designs included animals, Sipjangsaeng (Ten Symbols of Longevity), and Chinese characters with auspicious meanings, as well as the water chestnut. The application of beeswax to Neunghwapan helped hanji (Korean mulberry paper) to adhere to the blocks more firmly,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more delineated and vivid designs, and more effective moisture proofing. The use of oil obtained from the fruit of the hwangbyeok (Amur cork tree) or chija (gardenia berry) to dye book covers helped increase the aesthetic value of books, while the insecticid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helped protect the books from damage by harmful insects, as shown in ancient records and research. As a result of checking Neunghwa book cover of the old book Cultural Heritage published in the early, middle, and late Joseon Dynasty, it was found that applying beeswax to the Neunghwapan and rub it to reduce damage to the surface by reducing abrasion of the surface. It was thought that the Neunghwa book cover produced by printing pattern of moistening the cover with dyed paper and beewaxing on the Neunghwapan and Neunghwa book cover is similar to the Neunghwa book cover used in the old book Cultural Heritage.

Key words: neunghwa book cover, neunghwaji (water chestnut paper),
neunghwapan (water chestnut woodblock), manufacturing technique, beeswax,
hwangbyeok (Amur cork tree), chija (gardenia berry)

1. 서 언

동양에서는 문자와 서사재료 및 필기구 등이 출현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典籍을 생산해 왔다. 특히 서사재료의 하나인 종이 발명되고 생산되면서 전적의 제도에 여러 가지 裝訂의 형태가 생긴 이래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전적은 초기의 권축장을 시작으로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선장에 이르기까지 형태적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전적의 형태 중에서 기능적 측면과 미적인 측면에서 바뀌지 않았던 것이 전적의 표지(冊衣·책가위)이다.

조선시대에는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및 각종 儀軌類 등 기록문화의 정수를 구가한 시기로, 궁중의 기록문화와 더불어 일반 양반계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전적들이 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전적의 표지는 비단·삼베·염색지·능화지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능화표지는 궁중에 제작된 전적에서부터 서민계층에서 제작된 전적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冊衣로서의 능화지는 동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고전적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적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문화재청에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고전적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현재 58건의 전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423건의 전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359건의 전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선장의 경우 표지의 대부분에 능화표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능화표지는 보통 밀랍과 黃染된 한지를 사용하여 습기 및 충해로부터 전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능화표지에 나타난 문양을 통하여 전적의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능화지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며, 연구자들에게 그 인식조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적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능화표지에 관한 문헌기록과 현전하는 전적 문화재를 바탕으로 능화표지의 연구 및 선행되는 능화표지의 제작방법 등을 재현하여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고전적의 표지에 관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2. 능화표지의 정의와 문헌기록

‘菱花’라는 한자어의 우리말은 ‘마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마름이란 마름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조선조 초기에는 ‘末栗’이라 하였으며, ‘芝’·‘芝實’·‘菱角’·‘水栗’·‘菱’이라고도 하였다.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상부의 줄기는 수면까지 자라며 능화 모양과 비슷한 삼각형으로 상부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¹⁾라고 정의하고 있어, ‘菱花’는 곧 마름꽃의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編纂部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城南: 韓國精神文化研

무늬가 새겨져 있는 한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능화표지의 제작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전해진 바 없는 듯하나,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에는 능화지에 관한 부분적인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각 문헌에 記錄된 綾花紙·菱花紙

書名	王號	綾花紙	菱花紙	건수
『朝鮮王朝實錄』	太宗	1		1
	世宗	2		2
	世祖	2		2
	燕山君	2		2
	宣祖		1	1
	光海君		1	1
	孝宗	1	1	2
	肅宗		2	2
	景宗		1	1
	英祖	1		1
『承政院日記』	仁祖		1	1
	효종	1		1
	숙종	3	4	7
	英祖	2	1	3
『日省錄』	正祖	3	3	6
총건수		13	11	24

위 기록에서는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능화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太宗實錄』太宗 14년(1414)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치하는 것을 금하였다. 궁중의 자리에는 일찍이 자주색 綾緞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의 네 모서리에 선을 둘렀는데, 또한 비단으로 꾸민 것이라 하여 임금의 그 사치스럽고 無益한 것이 싫어서, 남색 生納로써 자주색 綾緞을 대신하게 하여 비단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講武 때 帳殿의 行步席에도 또한 白紋席을 사용하고, 進上寢席에는 다만 네 가장자리에만 무늬를 넣게 하였다. 또 궁내에서 臣僚에게 宴會하는 果床에는 紙花를 사용하고 御覽用 笏記에는 紅綾衣를 없애고 綾花紙로써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大小의 朝會에서 在內의 大君과 駙馬諸君은 世子의 幕次에 나아가서 同姓府院君과 異姓府院君이 하나의 行列에서 行禮하라고 명하였다.²⁾

究院, 1991), 卷7, 537.

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9), 太宗 14年 12月 1(庚午)日條.
“禁侈靡 宮中席子嘗用紫綾 緣邊四隅亦以錦飾 上惡其侈而無益 命以藍納代紫綾 除錦飾 講武帳殿行步席 亦用白紋席 進上寢席 只令四邊有紋 且命內宴臣僚果床用紙花 御覽笏記 除紅綾衣 代以綾花紙 命大小朝會 在內大

또한, 『日省錄』의 正祖 7年(1783)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교하기를 ‘『璿源譜略』의 中草를 오늘 이미 御覽하고 도로 내려 주었으니, 印役을 오늘부터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올리라고 분부하라. 序文은 중초로 올릴 필요 없이 內閣에서 써 보내기를 기다려서 즉시 印刷에 붙이라고 일체 분부하라. 白綿紙로 만드는 20건과 白紙로 만드는 30건을 더 인쇄하는 것으로 入啓하였는데, 奉謨堂에 奉安할 1건 외에는 모두 冊衣를 菱花紙로 하라고 분부하라. 이러한 뜻을 校正廳 및 內閣이 알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國朝譜牒에 景慕宮의 位號를 삼가 써야 할 것이니, 校正廳이 알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子孫錄』 제20권과 제21권의 卷次를 바꾸어서 粧橫할 것을 교정청에 분부하라.’ 하였다.³⁾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어람용 흘기에 紅綾衣 대신 菱花紙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조 초기의 太宗朝부터 능화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璿源譜略』의 경우 奉謨堂에 봉안할 1건 외에는 모든 표지를 능화지로 하도록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능화지가 표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적의 표지 이외의 용도로 능화지가 사용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

『日省錄』의 正祖 2年(1778)의 기사에는,

내가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문에 바른 능화지(綾花紙)는 어찌런 그렇게 거칠고 나쁜가?”하니,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錡)이 아뢰기를, “그중에 가려 바른 것이 이와 같습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 “능화지는 품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화판(花板)도 매우 거칠어 점점 옛날만 못하다. 이는 왜역(倭譯)들이 살피 신척하지 못하여 나쁜 품질의 것으로 미봉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물품을 호조 판서가 왜 신척하지 않았는가?”⁴⁾

『承政院日記』의 仁祖 1年(1623)에는

尹安國에게 傳教하기를 ‘수리하고 있는 공주의 방은 繡陳을 다 진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실의 翼廊을 菱花로 도배하지도 않았다. 속히 진열과 도배를 마치도록 該曹에 알리라.’ 하였다.⁵⁾

라는 내용을 통해 능화지가 전적의 표지가 아닌 침실 등의 도배지, 문지방에 바르는 창호지 대응으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君·駙馬·諸君就世子幕次 同異姓府院君一行行禮。”

- 3) 奎章閣 編, 『日省錄』 影印本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1972), 正祖 7年 2月 22(癸未)日條.
“教曰 譜略中草 今日已奉覽還下 印役自今日爲之 從近進呈事分付 序文不必中草進呈 待內閣書送 卽爲入印事一體分付 白綿紙件二十件 白紙件三十件 加印入啓 而奉謨堂奉安件一件外 皆以菱花衣爲之事分付 以此意令 校正廳及內閣知悉 又教曰 國朝譜牒卷 景慕宮位號敬書 令校正廳知悉 又教曰 子孫錄卷第次二十卷 二十一卷 換次粧橫事 分付校正廳.”
- 4) 奎章閣 編, 『日省錄』 影印本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1972), 正祖 2年 2月 15(丙午)日條.
“予命監董諸臣進前 予曰 門上所塗綾花 何如是麤劣耶 戶曹判書 具允錡曰 其中擇塗者如此矣 予曰 綾花非但 品數之不好 花板甚麤 漸不如古 此是倭譯輩不能察飭 以劣品彌縫之故.”
- 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仁祖 1年 9月 21(戊申)日條.
“傳于尹安國曰 公主旁修理處 非但繡陳未盡造排 寢室翼廊 不以菱花塗排 速令畢造排塗排事 言于該曹.”

3. 능화표지의 제작도구 및 특징

전적의 표지에 사용되는 능화표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능화판·염료·한지·밀랍·擦體⁶⁾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된다. 『朝鮮王朝實錄』을 편찬하기까지 거치는 여러 과정을 기록한 『實錄廳儀軌』에는 1冊을 장황하는 데에 참여한 장인을 비롯하여 粧冊을 위한 물품 등이 기록되어 있다.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의 「印役諸具」에는 1책의 장황에 들어간 물품으로 黃染草注紙 반장, 衣襟草注紙 2장, 膠末 5兩3錢5升, 砒霜 5兩, 菱花板, 紅眞絲 1斤12兩3錢이 사용되는 것⁷⁾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英宗大王實錄廳儀軌』의 「校讐廳甘結秩」에는 “正本의 冊衣에 들어갈 菱花板을 간행하는 데 써야 하니 길이와 너비가 넉넉한 좋은 품질의 自作板 1넝을 잘 선택하여 進排할 일입니다.”⁸⁾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실록청의례에 기록된 1책을 장황하는데 필요한 물품 중 능화표지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實錄廳儀軌』에 記錄된 능화표지 제작에 소요되는 물자

(단위: 1책)

	黃染草注紙	黃染水	正本紙	衣襟草注紙	衣襟膠末	菱花板	黃蜜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			○	○	○	○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			○	○	○	○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			○	○	○	○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			○	○	○	○
『端宗大王實錄附錄纂輯廳儀軌』	○			楮注紙		○	○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	○			○	
『英宗大王實錄廳儀軌』			○		○	○	○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	○	○	○	○
『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菱花一張	○	○		○
『憲宗大王實錄廳儀軌』		○	草注紙	○	○		
『哲宗大王實錄廳儀軌』		○	草注紙	○	○		○

『實錄廳儀軌』 기록에서는 능화표지의 제작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책의 장황에 사용된 물품 중 표지의 겉장에 사용되는 正本紙, 표지 배접에 사용된 衣襟草注紙, 배접시 접착제로

6) 擦體: 원래 木板의 印出에는 印鬚가 사용되고 菱花板의 印出 또는 打出에는 재질이 단단한 檀木이나 沙器로 된 沙鉢 등이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밀돌(擦石)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7) 實錄廳 編,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0), ‘印役諸具’條.
“一每一冊粧橫衣次 黃染草注紙半張 上下衣隔及空隔草注紙二張 衣襟草注紙二張 衣襟膠末都五兩三錢五升 砒霜五兩 綾花板一立自作板 黃蜜五兩三錢 紅眞絲一斤十一兩三錢.”

8) 實錄廳 編,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4), ‘校讐廳甘結秩’條, 庚子 8月 22日條.
“右甘結爲 正本冊衣所入菱花板開刊次 有長廣好品自作板一立 極擇進排事(戶曹·校書館).”

사용된 衣襟膠末, 능화문을 시문하기 위한 사용된 菱花板 및 黃蜜의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능화표지의 제작과정 및 표지가 능화지로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황벽, 치자 등 염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黃染草注紙, 黃染水라는 용어를 통해 황색계열의 염료가 사용되어 한지를 염색한 후 능화지가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전적을 장황할 때 필요한 물품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능화표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염료, 한지, 배접지, 접착제, 밀랍, 능화판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능화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도구로 擦體가 있다. 능화표지 제작에 필요한 주요 도구인 능화판, 밀랍, 擦體, 염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능화판은 고전적의 표지를 장식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木板이다. 이는 마름 모양의 각종 문양을 새기고 밀랍을 칠하여 능화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목판을 일컫는다.⁹⁾ 능화판은 고전적의 미적·기능적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능화판의 문양은 마름모양 이외에도 동물문, 십장생문, 문자문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사용된 능화문양으로는 조선초기에는 연보상화문, 연화문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바탕문으로는 귀갑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중기에는 칠보, 바탕문으로 근자문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말기에 들어서는 대부분 근자문이 사용되었다.

능화판과 관련하여 『實錄廳儀軌』에서는 각각 한 책의 전적을 장황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으로 능화판이 기록되고 있어, 조선조에 장책을 위한 도구로 능화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古書店 <通文館>을 경영하였던 李謙魯(1909~2006) 선생은 능화판의 뒷면에 새겨진 명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종이(紙)·붓(毛筆)·먹(墨)·벼루(硯) 등 이들 4가지를 文房四友라 하여 詩人墨客들의 필수적인 愛用品이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菱花板도 古人들은 文房具의 하나로 重用한 것이다. 그러므로 菱花板 중에는 후면에 ‘菱花板文房中一物而不可無者夏正戊申冬造成干竹下書室’이라는 達筆의 글씨를 새기고 그 밑에 ‘翠竹藏書閣’이라는 方印의 落款까지 곁들여 있는 것을 보면 先人들의 菱花板에 대한 愛用度を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古書의 製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것이다.¹⁰⁾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능화판은 古人들에게 전적의 미적·기능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필요한 소중한 물건으로 여겨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능화판은 형태상 목판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그 인출방법과 용도는 완전히 다르다. 목판의 경우 판면에 墨汁을 칠하고 약간의 힘을 가하여 인출지에 인출하는 도구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능화판은 전적의 표지로 사용될 두꺼운 배접지를 올려놓고 밀돌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장인이 모든 힘을 가하여 視紋하기 때문에 능화판의 제작 및 목재 선정 등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9) 洪淳天, “古典籍의 裝訂技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大學院, 2015), 44-55.

10) 李謙魯, “菱花板小考,” 『國會圖書館報』第6號(서울: 國會圖書館, 1969), 7.

한편, 밀랍은 꿀벌과 곤충 및 中華蜜蜂 등의 일벌에서 분비한 蠟質을 精製한 것을 지칭한다.¹¹⁾ 流巖 洪萬選(1643~1715)은 그의 『山林經濟』에서 蜜蠟 및 밀랍의 정제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따낸 꿀 덩어리는 새 生布로 거른다. 불에 녹이지 않은 것을 白沙蜜이라 하고 불에 녹인 것을 紫蜜이라 하며 이것을 磁器에 담는다. 꿀을 걸러낸 찌꺼기는 노구술(鍋)에 넣고 약한 불로 녹기를 기다려 찌꺼기를 건져 내고는 다시 달인다. 이보다 미리 錫器나 瓦盆에 냉수를 담아 놓았다가 이 蠟汁을 쏟아 넣으면 안에서 영겨 저절로 黃蠟이 된다.¹²⁾

능화지 제작에 있어 밀랍의 역할은 시문할 때 능화판 위에 올려놓은 종이를 밀착시켜 시문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능화판의 문양이 선명하고 광택이 나게 한다.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광택의 효과와 방습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문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溪谷 張維(1587~1638)의 『谿谷集』과 順菴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을 언뜻 들어 보면 그야말로 唐朝·宋朝의 시대를 앞질러 올라갈 수 있는 듯도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梔子나무 가지에 蜜蠟을 칠해 광택을 낸 것에 불과할 따름이니, 글의 폐단이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¹³⁾

… 李仁任이 柳仁雨를 달래어 ‘趙噉은 비록 趙小生の 숙부지만 마음이 本朝에 있으니 반드시 趙小生과 더불어 같이 반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왕명으로 그를 曉諭하면 그가 반드시 올 것이요, 趙噉이 오게 되면 雙城은 격문만 전하여도 평정될 것이니, 반역자의 머리에 피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고 하니, 柳仁雨가 그렇게 여겨 마침내 趙噉에게 蠟書¹⁴⁾를 보냈다. 趙噉이 蠟書를 보고는 이를 비밀로 하고 본국에 귀부할 것을 결심하여 드디어 趙小生の 참모인 趙都赤을 권유하였다. …¹⁵⁾

이상의 기록은 밀랍의 광택성과 방습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다. 이외에도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亂中雜錄』·『通鑑續編』 등의 여러 문헌에서 蠟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密書는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랍을 칠하거나 싼 편지 혹은 문서로 실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밀랍의 가장 큰 역할이 습기를 방지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1) 朴智善, “朝鮮王朝實錄 保存에 관한 研究,” 『朝鮮王朝實錄 保存을 위한 研究 照査』(서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5), 32.

12) 洪萬選 編, 『山林經濟』 影印本(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2 ‘牧養’條.
“將蜜脾用新生布濾淨 不見火者 爲白沙蜜 見火者爲紫蜜 入磁器盛之 却將濾下蜜渣入鍋內 慢火熬煎 候融化 拗扭出渣再熬 預先安排錫鍍或瓦盆 各盛冷水 次傾蠟汁 在內凝定 自成黃蠟.”

13) 張維 著, 『溪谷先生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仁祖 21(1643)], 卷6 ‘八谷集序’條.
“眞若可以軼唐宋而上之 徐而察之 梔蠟之色澤耳 文之敝也極矣.”

14) 蠟書: 비밀의 누설과 습기를 막기 위하여 잔글씨로 쓴 서류를 납밀로 문쳐서 싸고 봉하여 전하는 글을 의미하는 것이다.

15) 安鼎福 著, 『東史綱目』 影印本(서울: 景仁文化社, 1970), 卷14下, 恭愍王 5年 7月條.
“… 李仁任說仁雨曰 噉雖小生叔父 心在朝廷 必不與同叛 今以王命諭之必來 噉來 雙城可傳檄而定 逆豎之首 不足血也 仁雨然之 遂以蠟書遺噉 噉見書秘之 決意歸附 遂誘小生謀主趙都赤 …”

擦體는 능화판 위에 표지로 사용될 한지를 올려놓고 인출 장인의 강한 힘을 가하여 능화판을 시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능화지의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 擦體에 관한 고문헌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擦體는 재질이 단단한 檀木(박달나무)이나 사기로 된 사발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힘의 전달력이 약하고 쉽게 파손되어 능화지 제작에 사용되는 擦體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밀돌(擦石)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적의 표지는 서사·인쇄된 책지를 보호하고 미적 완성을 추구함으로 책지보다 두꺼운 한지 자체를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전적의 표지에 사용되는 염료는 藍(쪽)·紅花·黃蘗·梔子 등이 있다. 전적의 표지는 일반적으로 한지를 염색하여 3~4회 배접을 거쳐 제작하거나 배접 한지를 염색하여 제작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前者의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조선조의 고전적은 궁중에서 제작된 일부에서 藍(쪽)이나 홍화로 염색하여 표지를 제작한 경우가 확인되나 대부분은 황색계열의 표지로 제작되었으며, 염료는 황벽과 치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문헌기록에는 전적의 표지를 염색하여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고전적의 장정에 黃染草注紙, 黃染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황색계열의 염색된 한지 및 황색염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벽은 황색계열의 염료 중에서 채도와 명도가 가장 높은 연뒸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염색되며, 매염제 없이도 견직물에 쉽게 염색되는 염기성의 염료이다. 황벽은 살균작용이 강하여 오래 보존하여야 할 서책·문서·불경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¹⁶⁾ 流巖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는 <붓을 간직하는 법(收筆)>에서 황벽의 방충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東坡가 黃連과 蒿菝의 煎湯으로 輕粉을 개어 붓끝에 찍어 말려서 간직해 두었는데 좀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산골에서는 蜀椒와 黃蘗의 煎湯에 松煤(소나무를 태워 생긴 그을음)를 갈아서 붓에 물들여 간직하는데 좀이 먹지 않게 하는데 더욱 좋다.¹⁷⁾

또한, 芝山 曹好益(1545~1609)의 『芝山集』에서는 “黃紙를 쓰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벽이 좀이 먹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지에 물들인 것이다. 옛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모두 黃紙에 쓴 것은 이 때문이며, 서적을 가리켜서 黃卷이라고도 한다.¹⁸⁾”라는 기록을 통하여 황벽이 가지는 방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6) 이종남 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 현암사, 2004), 431.

17) 洪萬選 編,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收筆’條.

“東坡 以黃連蒿菝煎湯 調輕粉 蘸筆頭 候乾收之 不蛀 (必用神隱) 山谷 以蜀椒黃蘗煎湯 磨松煤 染筆藏之 不蛀 尤佳 (必用).”

18) 曹好益 著, 『家禮考證』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卷1, 祠堂, ‘焚黃’條.

“…按 用黃紙 別無意義 以黃蘗辟蠹 故染之紙 古人寫書 皆用黃紙者爲此 而書亦謂之黃卷 ….”

치자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현재까지 매염제 없이도 염색이 잘 되도록 하는 직접성 염료로 사용되고 있다. 황색계열의 염색에서 무엇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단백질성 염료이며, 노란색을 지칭하는 색명에 ‘치자빛’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염료이다.¹⁹⁾ 치자에 관하여는 『進宴儀軌』를 비롯하여 靑莊館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 響山 李晚燾(1842~1910)의 『香山集』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되고 있다. 그 중 竹所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에서는 梔子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치자에 네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꽃의 빛깔이 희고 윤기가 있음이 첫째요, 꽃의 향기가 맑고 깨끗함이 둘째요, 겨울에도 잎을 갈지 않음이 셋째요, 열매로 노랑물을 들일 수 있음이 그 넷째다. 치자꽃은 성질이 건조하고 더운 것을 아주 싫어하므로, 몹시 더운 곳에서 키우면 가지와 잎이 누렇게 시들어 꽃을 피우지 못한다. 또 얼어서 상하는 것도 좋지 않다. 치자는 여러 가지 꽃 중에서 관리하기 가장 힘들다. 물을 잘 주어 말리지 말아야 하며, 더운 햇볕에 쬐지 않아야 한다. 잘만 기르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²⁰⁾

중국의 고대 의약서인 『本草綱目』에서는 치자의 방충효과에 관하여 “소변을 통하도록 하고 소갈증을 해소해주며, 눈을 밝게 하고 구역질에 효과가 있으며 저층(흙바퀴) 독을殺한다.”²¹⁾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流巖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는 “跌傷(달리다 넘어져 다침)으로 붓고 참을 수 없이 아플 때는 치자와 白麪(메밀)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발라주었다가 마른 다음 물로 씻어주면 즉시 효험을 본다.”²²⁾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황벽이나 치자 등이 典籍 표지의 염료로 사용된 것은 典籍에 미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각종 이물질에 의한 표지의 오염을 보완해 주며 황벽과 치자가 충해의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보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近年에는 밀랍과 치자 및 황벽 등이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균효과를 나타낸다는 실험결과를 통하여 능화지의 항균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²³⁾

19) 이종남 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 현암사, 2004), 414.

20) 權鼈 編, 『海東雜錄』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86), 卷2, 本朝2, ‘姜希顔’條.

“梔子有四美 花色白腴一也 花香清潤二也 冬不改葉三也 實染黃色四也 梔子花性大惡燥煖 收藏大暖 則枝葉萎黃 不能發花 凍傷亦不可 衆花中收藏最難 澆水勿燥 又勿曝畏日 若善培養 則能結實.”

21) 李時珍 編, 『本草綱目』 中國本 (上海: 廣益書局, 民國5(1916)), 卷36, 本草.

“梔子 主治 … 通小便 解消渴 明目 主中惡 殺庶蟲毒 ….”

22) 洪萬選 編,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救急, ‘手足折傷’條.

“梔子白糲爲末 水調搽之 乾則洒水 卽效.”

23) 洪淳天·金順寬, “菱花紙 製作技法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 『保存科學研究』 第32輯(大田: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20.

4. 능화표지의 재현 제작 및 비교

현재까지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능화표지 제작방법은 대략 10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다.²⁴⁾ 능화표지의 10가지 제작 방식에 사용된 도구는 거의 일치하며 단지 방법론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표지에 사용되는 한지를 배접 전 혹은 배접 후에 염색을 진행하였는지, 밀랍을 능화판 혹은 표지의 앞면에 칠하여 시문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능화표지의 제작에 있어 표지의 배접과 염색의 선·후 관계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전하는 전적류의 능화표지를 살펴보면 표지의 겉면만 염색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지의 안쪽은 일반 배접지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표지의 겉면과 같은 색상으로 염색된 배접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지에 사용되는 한지를 배접한 후 염색과정을 거치는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밀랍 및 습기의 사용방법 등에 따라 제작되는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을 제시하고 제작된 능화표지를 비교하였다.

4.1 능화표지의 재현 제작

현재 능화표지를 제작하고 있는 10가지 방식 중 표지를 배접한 후 염색하여 능화표지를 제작하는 4가지 방식과 불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한 능화표지의 제작방식은 총 5가지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능화표지 제작 방식(염색 후 배접)

	염색 후 배접	습기	밀랍 칠		시문-밀돌
			능화판	표지	
재현 1	○		○		○
재현 2	○		○	○	○
재현 3	○	○	○	○	○
재현 4	○(풀칠 도포)	○	○	○	○
재현 5	○(콩즙 도포)	○	○		○

재현된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은 기본적으로 염색된 한지를 배접하여 표지를 만들고 밀랍 칠을 한 후 밀돌로 시문하여 능화문양을 올리는 방식으로 능화표지를 제작하고 있다. 위 재현방식의 공통점은 염색 후 한지로 배접하여 표지를 만들고 밀돌을 사용하여 능화문양을 시문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표지에 습기를 주었는지 여부, 밀랍 칠의 방식 등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24) 김윤경, “조선시대 菱花紋 표지 복원 제작 연구,” (碩士學位論文, 龍仁大學校大學院, 2006), 49.

첫째, 재현 1, 2의 경우 배접된 표지에 습기를 더하지 않고 바로 능화문양을 시문하며, 재현 3, 4, 5의 경우 배접된 표지에 습기를 더한 후 능화문양을 시문하는데, 각각 습기를 더하는 방법에 차이점을 보인다. 재현 3, 4는 표지에 물을 충분히 축인 후 각각 1일, 1시간 정도 비닐에 싸서 눌러 놓은 후 반 건조 상태에서 능화문양을 시문한다. 이때 습기가 더해지는 정도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달라지며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의 능화표지를 그대로 건조시킨다. 반대로 5의 경우는 능화문양을 시문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약간의 습기를 더한 후 능화문양을 시문하며, 시문과정에서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다. 정확한 습기의 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시문하는 장인의 경험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습기를 가하면 밀들에 강한 힘을 주어 문양을 시문하는 과정상 표지가 찢어지거나 보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습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밀랍 칠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재현 1, 5에서는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는 방식으로 능화표지를 제작하며, 재현 2, 3, 4의 경우 능화판과 표지의 양쪽에 밀랍을 칠하여 제작한다. 표지에 밀랍을 칠하는 방법은 정제된 밀랍을 별도의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밀랍을 녹여 종이에 스미게 제작하는 밀랍지와 차이를 보인다.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는 것은 시문할 때 능화판 위에 올려놓은 표지를 밀착시켜 시문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능화판의 문양이 선명하고 광택이 나게 한다.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광택의 효과와 방습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위의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시문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표지의 섬유 손상을 줄여 섬유 보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재현 4의 경우 배접 후 그 위에 풀칠을 한 후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표지를 제작하며, 재현5의 경우 염색한 한지 위에 콩즙을 도포한 후 건조하고 배접하는 방식으로 표지를 제작한다. 이는 시문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지 손상을 줄이고, 방습의 기능을 보완해 준다.

4.2 재현된 능화표지의 비교 및 분석

위의 5가지 방식으로 재현하여 제작된 능화표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고 표지에 습기를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된 재현 1의 경우 능화문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광택의 정도가 낮다. 문양의 외곽선은 뚜렷이 나타났으나, 5가지 제작방식 중 능화문양이 가장 나타나지 않았다.

능화판과 표지에 각각 밀랍을 칠하고 습기를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된 재현 2의 경우 능화문양이 비교적 잘 나타나며 광택의 정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면에 칠해진 밀랍으로 인해 문양이 선명하지 않고 문양 외곽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능화판과 표지에 밀랍을 칠하고 물을 축인 후 1일 정도 눌러 놓은 후 시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재현 3의 경우 능화문양의 광택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문양 자체가 매우 지지분하게 나타났다. 또한 문양의 외곽선도 심하게 번져 있었다. 이는 아마도 오랜 시간동안 습기에 노출되어 있던 표지의 섬유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시문되는 밀돌로 인해 손상되어 보풀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추가적으로 시문이 완료된 표지가 건조되면서 표지 표면이 울렁이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표지 표면에 풀칠을 하여 배접된 표지와 능화판에 각각 밀랍을 칠하고 물을 축인 후 1시간동안 눌러 놓은 후 시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재현 4의 경우 능화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광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현 3과 비교하였을 때 제작 방식은 동일하였으나 습기를 더하는 시간을 매우 적게 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현 3의 방식보다 표지손상이 훨씬 적으며 문양의 선명도와 광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표지에 칠한 밀랍으로 인해 문양의 외곽선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지 표면에 콩즙을 도포하여 배접된 표지와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고 습기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제작된 재현5의 경우 표지의 표면손상도 거의 없었으며, 능화문양도 매우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광택도 매우 높게 나타나며, 문양의 외곽선도 번짐 없이 매우 깨끗하게 시문되었다. 이는 콩즙의 도포가 시문시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한 표지손상을 억제해 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림 1> 재현된 菱花紙 비교

종합해보면, 첫째 표지에 습기 주는 것은 시문하는 과정에서 밀돌이 전달하는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문양을 선명하고 광택을 높이 역할을 한다.

둘째, 습기를 더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습기의 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시문하는 장인의 경험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습기를 더하거나 오랜 시간 습기에 노출되면 표지 섬유가 약해져 밀돌에 강한 힘을 주어 문양을 시문하는 과정상 표지가 찢어지거나 보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습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시문하는 과정에서 표지와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제작한 능화표지와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제작한 능화표지를 비교하였을 때 시문되는 능화문양의 선명도와 외곽선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표지 표면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는 능화표지의 경우 표지에 밀랍을 칠하는 정도에 따라 문양의 선명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문과정에서 밀돌이 가해지는 힘과 마찰에 의해 능화판 문양 이외에 문양이 없는 곳에서도 밀돌이 지나간 흔적이 발생된다. 문양이 진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문양 주위가 번져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조선시대 전적의 능화표지 분석

앞서 재현된 능화표지에서는 표지에 습기를 더하고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였을 때 선명하고 두드러진 문양이 나타났다. 하지만 현전하는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전하는 전적문화재를 바탕으로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을 유추하고자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인 보물 제1136-1호 『入學圖說』은 태조 7년(1397)에 간행된 權近(1352~1409)에 의해 사서오경과 태극도설의 주요 개념어를 뽑아 저자된 성리학의 입문서이다. 이른 간행시기로 표지의 결손 및 마모 등 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표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이 되어 있으며 표지는 능화표지를 사용하였다. 능화표지의 뒷부분은 일반 배접지로 배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지 겉면을 염색한 후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지의 능화문양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사격회자문 바탕에 연화, 보상화 등의 문양이 배열되어 있는 능화판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능화문양의 선은 마모가 되지 않아 표지 섬유가 온전히 있고, 광택이 남아 있다. 문양 이외의 표지부분이 거칠게 마모되어 표지 표면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표지 표면에는 밀랍이 칠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표지가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부분적으로 색상이 바래있고, 표면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염료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밝은 황색계열의 염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황벽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아단문고에 소장된 보물 제550호 『周易淺見錄』은 序, 跋, 刊記가 없어 간행 시기를 알 수 없으나 『世宗實錄』 세종15년 2월 癸巳條의 기록과 판식, 지질 등으로 미루어 세종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본다. 3권 3책의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능화표지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책지의 상태와 표지의 보존 상태를 비교하고 능화문양을 보았을 때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추측된다. 능화문양은 연속 배열된 근자문에 연화문이 혼합된 능화판을 사용하여 시문하였다. 문양의 선은 마모 없이 뚜렷이 남아 있고 광택도 온전히 보존된 상태이다. 능화문양의 외곽이 번짐이 없고 문양 이외에 바탕부분에 밀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시문된 능화표지로 추측된다. 표지의 색상은 붉은 황색계열로 치자를 염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 20년(1438)에 간행토록 명하여 제작된 『訓義資治通鑑綱目』 139卷 중 아단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552호 『資治通鑑綱目』 卷19 下의 경우, 앞표지는 존재하나 뒤표지가 소실되어 원 표지와 함께 새로 제작된 능화표지로 개장되었다.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원 표지는 부분적인 결손과 서배와 서구 부분에 오염이 고착되어 있다. 능화표지의 뒷부분은 일반 배접지로 배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지 겉면을 염색한 후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능화문양은 국화, 연꽃, 잡보 등의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이를 혼합 배열한 능화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선은 마모 없이 뚜렷이 남아 있고 문양의 광택이 남아 있으나 문양 이외의 표지부분은 거칠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표지가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지의 색상은 많이 바래있어 정확한 염료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밝은 황색계열의 염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황벽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충사 관리소에 소장된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중 선조 25년(1592) 5월 1일부터 선조 26년(1593) 3월까지 작성된 『壬辰日記』는 李舜臣(1545~1598)이 임진년에 필사한 일기이다. 표지는 표면마모와 전체에 크랙이 발생하고 표지 전체에 오염물이 고착되어 있었다.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는 능화표지를 사용하였다. 능화표지의 뒷부분은 일반 배접지로 배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지 겉면을 염색한 후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지 겉면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희미한 능화의 흔적을 보여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은 추측할 수 없었으나 적외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회자문 바탕에 연화, 능화 등의 문양이 혼합된 능화판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뒤표지의 색은 붉은 황색계열이 남아 있고 戰時 중에 작성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값이 싸고 구하기가 쉬운 치자를 염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보물 제1674호 『朴世堂 筆蹟 西溪遺墨』은 17세기 유명 文臣인 西溪 朴世堂(1629~1703)이 1679~1702년에 쓴 필적이다. 상·중·하 3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書帖의 형태로 장정 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계열의 능화표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지는 충해 및 물리적 훼손으로 인해 부분적이 결손이 발생하였고 서구부분은 습기로 인한 얼룩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능화문양은 비교적 선명하며 약하게 광택이 남아 있고, 조선 중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연꽃과 능화, 덩굴의 문양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다. 능화문양의 외곽이 번짐이 없고 문양 이외

에 바탕부분에 밀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시문된 능화표지로 추측된다. 또한 밝은 황색계열의 색상이 바래있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어 황벽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이다. 丙賜記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서문의 앞부분에 ‘宣賜之寶’를 찍었고, 우측 변란 밖으로 후에 조선총독부에서 찍은 ‘茂朱赤裳山 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長方形朱印이 있어 적상산사고본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25권 25책의 완질로 구성되어 있다. 선장본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는 능화표지를 사용하였다. 오랜 전시로 1책의 표지 표면에 오염이 있으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능화문양의 연속배열의 끈자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끈자 문양의 능화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선은 마모 없이 뚜렷이 남아 있고 광택도 온전히 보존된 상태이다. 능화문양의 외곽이 번짐이 없고 문양 이외에 바탕부분에 밀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시문된 능화표지로 추측된다. 표지의 색상은 붉은 황색계열로 치자를 염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9호 『萬曆己丑司馬榜目』은 숙종 6년(1680)에 제작성 된 것으로 간행된 활자본을 망실하여 후대에 朴東亮(1569~1635)의 후손 朴泰萬(1642~1689)이 다시 필사한 轉寫本이다. 1책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능화표지를 사용하였다. 표지 전체에 오염물이 고착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다. 결손부분을 통해 배접지를 확인한 결과 표지의 겉면을 염색한 후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지의 겉부분에 나타난 능화문양은 광택도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은 추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표지의 뒷부분을 통해 사격회자문의 바탕문에 보, 서각, 방승 등 잡보의 문양을 확인 수 있었다. 표지의 색상은 붉은 황색계열로 치자를 염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고종 25년(1888) 간행된 등록문화재 제529-2호 『電報章程』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전신규정을 담고 문헌이다.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되어 있으며, 능화표지의 뒷부분은 일반 배접지로 배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지 겉면을 염색한 후 배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지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마모도 거의 없으며 끈자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표지의 광택이 남아 있다. 문양의 형태로 보아 연속 배열된 끈자 문양의 음각 능화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양의 외곽이 번짐이 없고 문양 이외에 바탕부분에 밀돌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시문된 능화표지로 추측된다. 또한 밝은 황색계열의 색상이 바래있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어 황벽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측된다.

			
<p>보물 제1136-1호 『入學圖說』 사격회자문 바탕, 연화, 보상화</p>		<p>보물 제550호 『周易淺見錄』 연속 배열의 근자문, 연화</p>	
			
<p>보물 제552호 『資治通鑑綱目』 卷19의 下 국화, 연꽃, 잡보 등</p>		<p>국보 제76호 『壬辰日記』 회자문 바탕, 연화, 능화문</p>	
			
<p>보물 제1674호 『朴世堂筆蹟 西溪遺墨』 연꽃, 능화, 덩굴문</p>		<p>국보 제319-2호 『東醫寶鑑』 연속 배열의 근자문</p>	
			
<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9호 『만력기축 사마방목』 사격회자문, 보, 서각, 방승 등 잡보</p>		<p>등록문화재 제529-2호 『電報章程』 연속 배열의 근자문</p>	

<그림 2> 전적 문화재의 능화표지

조선시대 초·중·말기에 간행된 전적 문화재를 통하여 나타난 능화표지의 공통점은 표지의 마모와 색바램, 물리적 훼손에도 불구하고 표지 전체 마모에 비하여 능화문의 마모정도가 적고, 능화문양에 광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함으로서 마찰열에 의해 밀랍이 표지에 스며들어 표면의 마모를 적게 하여 표지의 손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표지의 앞·뒷면을 관찰하였을 때 황색계열의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종이를 배접하여 표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색된 종이를 배접한 표지에 습기를 주고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능화표지가 전적문화재에 사용된 능화표지와 유사함으로써 지향해야 할 제작 방식이라고 사료된다.

6. 결 론

조선 시대의 전적은 동아시아지역 인근 국가들의 기록문화유산과 비교할 때, 우리 고유의 능화표지가 사용된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능화표지는 마름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 종이를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 능화지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古典籍의 表紙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朝鮮王朝實錄』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實錄廳儀軌』의 기록을 통하여 1冊을 粧綴하는데 필요한 물품 중 표지인 능화지 제작에 공통적으로 黃染草注紙·衣襟草注紙·膠末·綾花所用黃蜜·綾花板 등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實錄廳儀軌』에 기록된 黃染草注紙를 통하여 황색계열, 즉 황벽이나 치자로 염색된 한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벽이나 치자 등이 능화지의 염료로 사용된 것은 전적에 미적인 효과를 더해주고 각종 이물질에 의한 표지의 오염을 방지하여 주며 황벽과 치자가 층해의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보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각종 문헌의 기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능화판의 제작방법에 관한 기록은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선조의 장책을 위한 도구로 능화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古人들은 전적의 미적·기능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능화판을 소중히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衣襟草注紙와 膠末은 典籍의 표지에 사용한 黃染草注紙 뒷면에 배접에 사용된 한지와 풀이었으며, 綾花所用黃蜜은 능화문을 시문하기 전에 능화판 위에 칠하는 용도로 사용된 밀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랍은 광택효과와 방습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제작되는 능화표지의 제작방식에 사용되는 사용된 도구는 거의 일치하며 단지 방법론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지에 사용되는 한지를 배접한 후 염색과정을 거치는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밀랍 및 습기의 사용방법 등에 따라 제작되는 능화표지의 제작방법을 제시하고 제작된 능화표지를 비교하였다. 첫째, 표지에 습기 주는 것은 시문하는 과정에서 밀돌이 전달하는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문양을 선명하고 광택을 높이 역할을 한다. 둘째, 너무 많은 습기를 더하거나 오랜 시간 습기에 노출되면 표지 섬유가 약해져 밀들에 강한 힘을 주어 문양을 시문하는 과정상 표지가 찢어지거나 보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습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시문하는 과정에서 표지와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제작한 능화표지와 능화판에만 밀랍을 칠하여 제작한 능화표지를 비교하였을 때 시문되는 능화문양의 선명도와 외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전하는 조선시대 초·중·말기에 간행된 전적 문화재를 분석한 능화표지의 공통점은 표지의 마모와 색바랜, 물리적 훼손에도 불구하고 표지 전체 마모에 비하여 능화문의 마모정도가 적고, 능화문양에 광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함으로써 마찰 열에 의해 밀랍이 표지에 스며들어 표면의 마모를 적게 하여 표지의 손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표지의 앞·뒷면을 관찰하였을 때 황색계열의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종이를 배접하여 표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능화표지는 염색된 종이를 배접한 표지에 습기를 주고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여 시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능화표지가 전적문화재에 사용된 능화표지와 유사함으로서 지향해야 할 제작 방식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적의 능화표지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능화표지의 제작 방법 재현하여 비교하고 현전하는 전적 문화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능화표지 제작기법이 복원되고, 고전적 표지의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權 鼈 編. 『海東雜錄』.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86.
- 奎章閣 編. 『日省錄』. 影印本.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1972.
-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實錄廳 編.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0.
- 實錄廳 編. 『英宗大王實錄廳儀軌』. 影印本. 서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4.
- 安鼎福 著. 『東史綱目』.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0.
- 李時珍 編. 『本草綱目』. 中國本. 上海: 廣益書局, 民國5(1916).
- 張 維 著. 『溪谷先生集』. 木版本. [發行情不明]: [發行者不明], [仁祖 21(1643)].
- 曹好益 著. 『家禮考證』. 木板本. [發行情不明]: [發行者不明], [發行情不明].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9. 「太宗實錄」·「光海君日記」
- 洪萬選 編.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단행본·논문]

- 김윤경. “조선시대 菱花紋 표지 복원 제작 연구.” 碩士學位論文. 龍仁大學校大學院. 2006.
- 朴智善. “朝鮮王朝實錄 保存에 관한 研究.” 『朝鮮王朝實錄 保存을 위한 研究 照査』. 서울: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2005. 23-37.
- 李謙魯. “菱花板小考.” 『國會圖書館報』 第6號(서울: 國會圖書館, 1969). 5-7.
- 이승철 著.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서울: 玄岩社, 2012.
- 이종남 著.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 玄岩社, 2004.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 『우리 옛 책의 아름다움』.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5.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編纂部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洪淳天. “古典籍의 裝訂技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 大學院. 2015.
- 洪淳天·金順寬, “菱花紙 製作技法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 『保存科學研究』 第32輯(大田: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5-24.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Original data]

- An, Jeong Bok. 1970. *Dongsagangm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Gyeonginmunhwasa.
- Chunchugwan ed. 1969. *Authentic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photographic edition. Seoul: Guksapyeonchanwiwonhoe. *Taejosilrok. Kwaghaegunilgi*.
- Gweon Byeol. 1986. *Haedongjapr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Taehaksa.
- Gyujanggak ed. 1967-1972. *Ilseongr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Hong, Man Seon ed. 1973. *Sanrimkyeongje*. photographic edition. Seoul: Gyeonginmunhwasa.
- Iee, Si Jin. 1916. *Bonchokangmok*. Chinese edition. Shanghai: Gwangikseoguk.
- Jang, Yu. King Injo 21(1643). *Gyegokseonsaengjip*. woodblock printing edition. [s.l]: [s.n.].
- Jo, Ho Ik. [n.d.]. *Garyegojeong*. woodblock printing edition. [s.l]: [s.n.].
- Seungjeongwon ed. 1986. *Seungjeongwonilgi*. photographic edition. Seoul: Tamgudang.
- Silrokcheong ed. 2000. *Seonjodaewangsilroksujeongcheonguigwe*. photographic edition. Seoul: Gyujanggak hangukhakeyonguwon.
- Silrokcheong ed. 2004. *Yeongjongdaewangsilrokcheonguigwe*. photographic edition. Seoul: Gyujanggak hangukhakeyonguwon.

[Book · Thesis]

- Departm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Psychiatry and Culture. 1991.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Seongnam: Korea Institute of Culture.
- Hong, Sun Cheon. 2015. *A study on the bookbinding skill of the oriental old books*. a thesis on a master's degree. Che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eongju.
- Hong, Sun Cheon & Kim, Sun Kwan. 2011. "A study on the Neunhwaji fabricat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Conservation Studies*, 32: 5-24.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Kim, Yun Gyeong. 2006. *A Research on Cover Restoration of Neunghwa Pattern Used in the Joseon Dynasty*. a thesis on a master's degree. Yong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Yongin.
-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2005. *Finding the beauty of Korean books*. Cheongju: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 Lee, Gyeom Ro. 1969. "Neunghawpansogo." *Gukhoedoseogwanbo*, 6: 5-7. Seoul: Gukhoedoseogwan.
- Lee, Jong Nam. 2004. *The natural dye that we really need to know*. Seoul: Hyeonamsa.
- Lee, Seong Cheol. 2012. *Beautiful Hanji of Korea*. Seoul: Hyeonamsa.
- Park, Ji Seon. 2005.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 study and survey on the conservation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p. 23-37). Seoul: Gyujanggak hangukhakeonguwon.

